



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움마니반베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어버이에 孝順하던 자식도 또한 孝順할지니  
내가 不孝하던 자식이 어찌 孝順하겠느냐.  
孝順은 心德의 大元이요 百行의 근본이며  
普提行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宗祖法說集中)

발행인: 총지화 편집주간: 지성 편집인: 황의수 인쇄인: 김규식

www.chongji.or.kr

제20호 총기 30(2001)년 1월 1일 월요일 구독신청: (02)552-1081

## 날마다 새로워지소서!



▲ 총기 30년 팽발한 교도와 비참하는 겁에 질린 새로운 도의의 해를 맞는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새해 아침이 건만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리니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제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중생으로서 개혁이나 사정이나 떠드는 것을 보면 가소롭기조차 합니다. 옛 속담처럼 뿔뿔이 맑으면 아래물은 자연히 맑아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은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으니 언제 진정으로 맑은 새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사회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로서 그 책임

### 총경 상념범어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 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수명으로 자신을 다듬고 중생을 이끌어야 할진대, 호의호식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자리다툼의 혈안이 되고 헛된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정도를 받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 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번영이나 발전이나 다 좋은 말이지만, 자신을 되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자심으로 서원합니다.

신사년 새해 아침  
총지종 종령 祿靜

### 총지종 캠페인

#### 절약 그리고 나눔

한국인이 먹지 않고 버린 음식은 만들어진 음식의 1/3이나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7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본 적 있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7조원이면 우리가 하루에 백만 원씩 쓰면 이지는 그냥 두고 원금만 쓰는데 대충 계산해도 무려 16,900년 정도 걸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넉넉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낭비가 자행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음식문화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은 빵에 비해 단백질이 매우 우수하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 70g은 쌀 750g이면 충분하지만 빵은 1400g을 먹어야만 7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 빵을 먹는 민족들은 1.4kg되는 빵을 먹으려면 하루 종일 먹어야 한다. 그러나 고기 등 다른 식품에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도 밥을 먹기 위한 빵과 빵과 하는 부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즉 찬은 그것만 먹을 수 없는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식성에 따라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고 남기 마련이다. 또 양식이나 중국 음식은 하나 하나씩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 수만 계산하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요리할 수 있지만 한식은 한 상위에 모두 차려 놓고 같이 모여 앉아 먹으니 요리해야 할 음식의 양도 계산하기 어려울 뿐더러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이 있어 음식이 남기 마련이다.

불교에서 스님들의 식사법은 비루 공양이라 하여 식사가 끝난 후 반찬은 물론 자신이 먹은 밥도, 국도, 국도, 반찬그릇에 물을 부어 그릇에 붙어 있는 찌꺼기까지 몽땅 먹는다.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가장이 먹고 안식구가 먹고 그 집 한인이니 총들이 먹고 다시 남은 음식은 구경통 등에 모아 가족이 먹고 하니 남은 음식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상물림이 사라져 버렸고 남은 음식물들은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니 하면서 가정주부의 일손을 늘리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정경제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물론 한끼에 다 먹어 치울 수 있게 밥을 짓고 찬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량(計量)적인 부의살림으로의 의식 전환과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자기 그릇에 담아 먹도록 하고 차려내기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어른들의 의식이 버리는 음식을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특히 잔치집이나 뷔페 식당 같은 데서의 음식낭비는 무척 심하다. 아이들까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점심을 굶는 아동들이 있고 한끼 해결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몇 십분씩 줄을 서는 노숙자도 있다. 올 겨울은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견된다. 이럴 때 적어도 총지종 교도, 혹은 보살이라면 절약하고 아껴서 버려지는 음식을 줄여 남긴 부식비로 그 가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끼의 식사라도 전하는 것이 어떨까.

### 신사년 새해불공 봉행

2001년 1월 8일부터 1주일간 전국사원에서

지난 12월 28일 10시 종무식으로 경진년을 마감하였다. 지성 총리원장 직무대행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마감하면서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여 다음해에 종단

과 개인발전에 원동력으로 삼고, 나쁜일은 빨리 잊어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 희망찬 신사년을 맞이하자 하였다. 특히 신사년은 총기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

며 사람으로 치면 종단이 성년으로 들어가므로 스승과 종무원과 교도들이 혼연일치되어 종단발전의 일대 전환기로 삼자 하였다. 시무식은 1월2일에 있으며 신사

년 새해불공은 1월 8일부터 1주일간 전국사원에서 거행된다. 특히 화랑일인 1월 14일은 전국사원에서 7시간 철야정진으로 한해를 시작한다.



▲ 신규 스승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는 종정님과 선서를 하시는 스승님들.

규 스승발령과 사원주교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관련기사 2면). 한편 특정 종령은 총기 30년을 이룰 새 총리원장 선출에 신중을

기해 100일 불공에 들어갔으며, 총리원장은 종령이 지명하여 중앙종 의원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제12대 총리원장 직무대행 체제, 신규스승 인사이동

11대 총지화 총리원장 임기가 지난 10월13일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12대 총리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출발하였다.

총기 29년 10월 14일부터 종헌 제6장(총리원) 제24조(직무)3항에 의거 현 총무부장 지성(정혜사원당주교)이 총리원장 직무를 대행

한다 하였다. 지성 총리원장 직무대행은 총기 11년에 총지종과 인연을 맺어 총기 25년 원외교 의원과 총기 26년

총무부장을 역임중 지난 10월 14일부터 12대 총리원장 선출에 앞서 직무대행을 맡았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날짜로 신

### 제28회 창교절, 전국 사원에서 성황리 봉행

지난 12월24일 제 28회 창교절 행사를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높고 넓은 뜻을 추慕하옵고 그 크고 크신 은혜 한량없음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 그 鴻恩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총지종은 재가불교이지만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정도의 길을 걸어왔고

항상 종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법도를 지켜야 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법을 받들고 용맹정진할 때 우리 총지종의 미래가 있다는 법어를 내리셨다. 또한 총기 30년을 눈앞에 둔 지금 성년이 된 종단으로서 여러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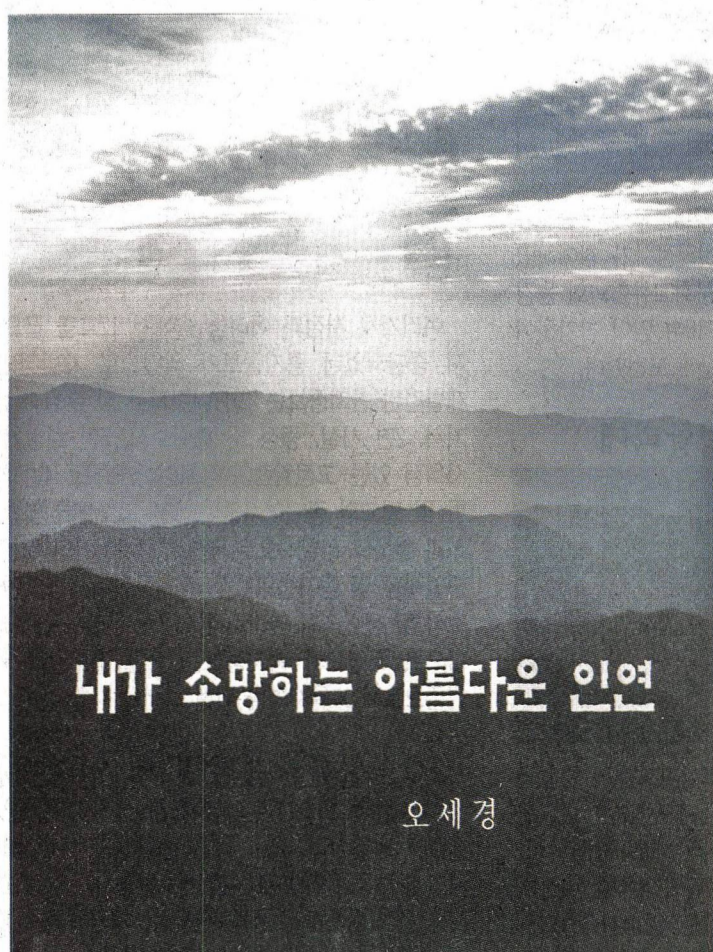
면에 더욱 분발하고 무엇보다도 교세발전에 더욱 진력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만다라 조성 불사는 우리 총지종의 가장 큰 염원이자 대작불사이며 전 종단이 합심단결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으며, 창종 당시의 열화와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고 말씀하셨다. 특히 승직자는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참스승으로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수명으로 정진하며,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여 참진언행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다시 조발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다.



**1교도 10부 총지종보 선전합니다**

**총지종보**  
여러 교도분들의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총지종을 포교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 내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연

오세경

새천년 운운하며 새해맞이 등반을 한지가 엇제 같은데 벌써 또 새해란다. 흔히 세월의 체감속도는 제 나이의 두배라고 하더니 맞는 말인가보다. 스무살적 그렇게도 더디 가던 세월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는 세월의 속도 만큼이나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일까. 얼른얼른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헤어져야 할 사람 헤어지려는 것인지, 올해도 수첩을 정리하다보니 지워지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있다. 만남이 있었으니 헤어짐의 오늘은 예정된 일이라고 하나 만남처럼 혼연한 이별이 드문 때문인가. 좋게 헤어졌던 나쁘게 헤어졌던 헤어짐에는 늘 착잡한 감상이 뒤따르곤 한다. 웃기만 스쳐도 오백생의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쉬이 헤어져도 되는 것인지, 인연을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해마다 이맘때면 한뼘씩 인연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몇해 전 문득 내 자신이 낯설었던 적이 있었다. 어떤 인연으로 어떤 흐름을 타기에 여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인지 생경스러웠다.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혼란기였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때 놀이삼아 내 삶의 인연들을 돌아본 적이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인연을 찾아보았다. 원인찾기 놀이를 통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눈치챘다. 일상적으로 쓰고있던 인연이란 단어가 얼마나 지중한 말인지 실감되며 오솔한 한기마저 느껴졌다. 업에 의해 만나지고, 만남으로 또 업을 지어가고, 그 업의 과보로 또 만나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로 인간의 회노애락 우비고뇌가 다 그 안에 있지 않은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속에 행복도 불행도 있는 것이라. 인연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중생일터요, 인연으로 업의 매듭을 풀어간다면 보살일 것이다. 매듭풀기가 끝나면 그것이 곧 해탈 아니겠는가.

이후로 인연에 좀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인연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

이던가.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무상한 존재로서의 만남이니 인연줄이 이어져도 거기에 늘 변수가 많다. 지금은 비록 단단히 맺어져 있는 듯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예측불허다. 어떤 인연은 이 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듯 강철같이 단단한 인연인줄 알았는데 아침 햇살에 눈독도 허무하게 스러지기도 하고, 쇠심줄 같이 질기다고 생각했던 인연줄도 새벽이슬 맞은 거미줄처럼 맥없이 끊어지기도 한다. 그렇긴 해도 살아감은 인연의 연속이니 아마도 죽는 그날까지 원하던 원치않던 나 역시 인연의 오고감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할 것이다. 무상한 존재로서 변함없는 인연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상한 일인긴 하나 아름다운 인연, 온전한 인연에 대한 갈망은 쉬이 놓아지지 않는다.

아름답고 견고한 인연. 흔들림 없이 깊고 청정한 인연. 생각만으로도 성스러운 이러한 인연에 대해 생각하다가 불보살님의 인연으로 생각이 이어진다. 흔히 인연은 가꾸기 나름이요, 저 하기 나름이라고 말할 하지만 정작 하기나름이라는 말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경우는 불보살님의 인연일 것이다. 불보살님의 인연에서는 변수가 없다. 저쪽이 업을 떠났으므로 온전히 이쪽 하기 나름 아닌가. 그런 인연조차 깊게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중생간의 인연에서 아름다운 인연, 견고한 인연 운운할 수 있겠는가. 헛된 욕심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불보살님과 인연맺은 이십년이 넘었다. 신년에는 불보살님의 인연을 통해 아름다운 인연, 깊고 성스러운 인연을 실감해 보고싶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세상 인연과의 격도 높이고 싶다. 하루 만나고 헤어지는 잠깐을 스쳐지나가는 사심없이 운유하게, 맑고 향기롭게 인연을 풀어가고 싶다. 인연으로 업의 매듭을 짓는게 아니라 한번의 인연마다 하나의 매듭, 열의 매듭을 풀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를. 걸림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사설

위험수위를 넘은 불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전통적 윤리체계가 무너진 현실에 내노라 하는 식자들이 우려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여러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국가를 형성한 이래 무려 반만년이라는 세월 동안 농경 산업이 주를 이루어 왔었다.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농경산업은 대를 물려 얻은 경험에 바탕하고 또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위의 혈연에 매개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가족을 유지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사회적 가족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가족간의 혈연적 관계가 확립되어야 했다. 비록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절대선이라고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생산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인류가 지켜야 할 덕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현대에 들어 이렇저런 요인으로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히 파괴되고 이른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에 치중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 그리고 윤리적 체계가 함께 동반 파괴되었다.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하듯, 수평적인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다보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건강성은 탈각되고 그 천민성만 만연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 했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가능하였다. 출세를 위한 경쟁은 자연히 탈락자를 양산하게 만든다. 소수의 출세를 위해 절대다수는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된 형태를 갖추면 이런 천민성이 다소라도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군부와 관료 그리고 재벌에 의한 갑악적인 통치를 넘어 일정한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면, 즉 정통성을 갖는 정권으로 교체되면 당연히 우리 사회도 천박한 수준을 벗어나리라 믿었다. 그리하여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 직후 국가 경제의 파란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이 협조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대통령 개인과 그 정당은 명성과 권력을 얻었는데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만 짙게 깔리고 있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하더니 실리는 모두 우리 사회의 상층 5%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몰이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는 이 정권과 관련하여 온갖 소문만 무성하게 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소문을 잠재우게 하려고 '유언비어'의 근원을 색출하여 처벌 한다는 염포를 남발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덮기 위해 써먹던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 부정부패로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킨 정부의 탓인지 도처에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비윤리적인 현상이 득보처럼 번지고 있다. 사행과 사음이 결합할 수 없이 관을 치더니 급기야 자살을 도와주고 사체를 받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근본부터 뒤흔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것이 한순간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런 현상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화려한 치적을 위해 국력을 쏟으려 하지 말고 사회 내적인 통합력을 재정립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충고한다. 지금 위험 수위를 넘은 국민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서 다시금 최소한의 희망을 갖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지종보가 새로워졌습니다

**총지종보 지방 취재원을 모집합니다**  
 밀교의 세계, 진인의 세계에 함께 하실 분 총지종보로 연락하십시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총지종보사  
 전화:(02)552-1080~3 팩스:(02)552-1080 www.chongji.lo.kr

1. 신입종무원 연수



본 종단 최초로 신규 종무원을 공채로 채용하여 1월11일~15일 4박5일 동안 괴산 수련원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이영, 김민호, 김중우, 염준구, 오경후, 하경목, 황의수 7명이 신규 종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이들은 6개월간 신규수습교육을 받았다. 새벽불공으로 시작하여 불교교리, 대승불교, 밀교교리, 총지종교리 등 종단의 사상과 교리와 한문, 서예, 기공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종단의 커다란 일꾼으로 성장하였다.

2. 제7대 종령 추대식 거행

지난 2월15일 제7대 종령 추대식이 총지사에서 거행되었다. 전국 스승님과 교도 300여명이 참석하여 제 7대 종령에 특정 대정사를 추대하였다.

특정 대정사는 1972년 총지종 창종 교조인 원정대종사와 함께 총지종 창종에 함께 하였으며, 제2대, 4대, 6대, 7대 종령을 거쳐 제8대 총지종종령에 재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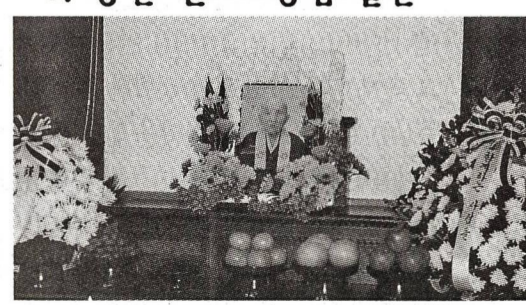
3. 종단 홈페이지 업데이트

총기 27년에 개편된 홈페이지를 지난 3월1일에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다. 그동안 스승 및 교도 여러분들의 호응속에 운영되던

총지종 홈페이지를 새롭게 혁신된 모습으로 바꾸어 다양한 기능과 전통 밀교종단으로서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에 명실상부한 종단의 사이버 포교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산화 작업 및 사이버성으로 정통밀교를 홍보, 포교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4. 종단 원로스승님 열반



고 심인행 지수님은 법랍28세(세수 74세), 고 모효심 지수님은 법랍28세(세수 92세)를 일기로 세연을 다하시고 지난 5월 21일과 11월 7일에 열반하셨다.

고 심인행지수님께서는 1926년 경주에서 출생하여 일본 기부현의 무의(武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2년 총지종에 입교하여 출공 교사학과 중생교과와 의 일원으로 정진하였으며 종의회의원을 거쳐 본종단 총리원 사회부장, 실지사 주교를 역임하였다.

고 모효심지수님은 평생 중생교과의 일선에서 진언 염송의 공덕을 널리 퍼셨던 분으로 현 경주 수계사의 전신 현곡선교부를 1982년 개원하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종의원을 거쳐 대전수의 품계에 오르셨고, 89년 여

성승지자로서는 최고의 품계인 지수로 승서하셨다.

5.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수련법회 개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16일까지 충북 괴산수련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수련법회를 개최하였다.

나. 나. 우리 하나되는 총지인 이란 주제로 2박3일 동안 진행된 어린이 수련대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학생수련대회는 200여명의 어린 진언행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내용으로 화합의 정신과 심신의 단련을 통한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경로수련법회는 전국 65세이상의 보살님 500여명이 참여하여 법회 및 건강강의, 장기자랑과 연예인 공연으로 심신을 더욱 돈독히 하였으며 전국의 교도들이 모여 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해 불공정진을 다 하자 하였다.

6. 총지종 역사 한눈에

총기 원년(서기 1972년) 9월 9일부터 총기 18년(서기 1989년) 11월 30일까지에 대한 총지종 교사를 정리하여 양장본으로 내놓았다.

양장본 3장 194페이지로 된 교사집은 제1장 개종전의 주요사실, 제2장 입교개종, 제3장 개종후의 종단발전사로 되어있다.

총기18년 이후부터 총기 29년까지의 총지종 역사는 현재 총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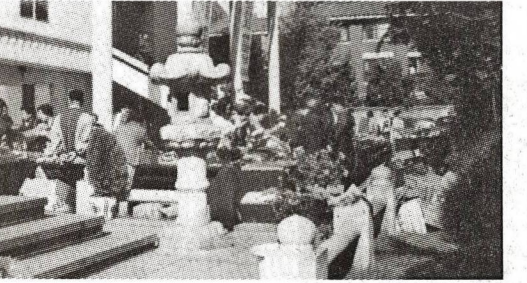
7. 국제불교교류 확대



한·중·일 불교우호 및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3국 불교도들의 친선과 우의를 다져 불국정도를 건설하자는 의미의 행사가 지난 6월 5일부터 20일 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불교문화교류대회는 14박15일로 중국불교유적답사와 양국 세미나에 법성·대원정사가 참여하였으며, 4박5일간 열린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동경대회에 총리원장 및 법원장 등 10여 명이 참가하여 밀교에 대한 양국의 우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8. 강남 은빛축제 성황리에



(사회복지법인)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총지종 총리원과 역사기념관·인본복지센터가 주최한 강남 은빛축제가 지난 10월12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강남지역 노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용서비스, 한방치료, 수족점시술, 영정사진촬영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불교방송, 불교벨

서울·경인교구회의 개최

서울·경인교구 교구회의가 12월 12일 오후 3시에 기로원 스승님이 계신 상남 법천사에서 스승님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도의 연령대가 노령화 되고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젊은 신도들의 교화방법 및 포교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을 내놓았다. 각 사원회의의 신정화 및 청년화, 어린이 법회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통한 행사의 다양화와 현대화 방법을 제기하였다.

또한 12월24일 창교절행사를 각 사원마다 개최하였는데 본산인 총지사에서 스승 및 교도들이 모두 참여하여 형식과 내용을 갖춘 행사를 치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각 사원별로 열린 새해불공에 대한 교도들의 속삭이에 대한 전체 방침을 설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한편 경진년이 저물기 전에 원로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창종 당시의 정신과 총지종 교세발전의 서원을 세우는 정진의 자리를 마련하자 하였다.

복지법인 이사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22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2001년 재단 예산안 및 임원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1년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예산안은 4억 600만원으로 확정하고 외부이사선임에는 여익구(역삼재가복지재단 관장)와 장윤창(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및 함께하는사람들 회장)씨가 선임되었다.

한편 총회의장인 삼밀사 주교 의강은 지난 9월 1일자로 법무부 부산구치소 종교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의 실수로 목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언과 염송으로 교정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구·경북교구 교구회의 개최

12월18일 오후 12시에 대구 개천사에서 교구 지회 참림총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23일에는 경주 국광사에서 대구·경북교구 교구지회 임원을 선출하여 교구지회가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하며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화합의 정신을 고취하여 포교

교구 소식 및 동경

 지성 총리원장 직무대행	 법등 총지사 주교	 시정 법천사 주교	 해정 관성사 주교
 지공 밀행사 주교	 무공 운천사 주교	 연등원 지인사 주교	 진일심 정심사 주교
 정원심 건희사 주교	 총지화 총지사 퇴직	 청암 지인사 퇴직	 일성혜 지인사 퇴직
 경관 관성사 퇴직	 대도행 관성사 퇴직	 불멸심 건희사 퇴직	 이반혁 단음사 증무원 퇴직

총기 29년 총지종 10대 뉴스

새천년을 연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해가 저물어간다.  
 총지종보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종단내의 크고 작은 각종 중요뉴스를 무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해나 그렇듯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해도 좋은 일이 더 많았다.  
 총지종보에 장식했던 좋은 뉴스만 추려도 지면이 넘치고도 남을 정도.  
 중도들과 같이 생각하며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총지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

9. 총지종보 재발간



여러가지 사정과 어려움 속에서 17호를 끝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총지종보가 속간으로 재발간되었다. 재발간된 총지종보는 1면 머릿기사 및 수필과 켈레언, 기사, 2면 사설, 동정 및 종단소식, 3면 해설기사 및 사회성 있는 고정칼럼과 정보다이제스트, 4면 지상설법 및 밀교와 종단역사, 5면 복지센터 및 학교소식과 현목의 성찰속으로, 6면 원정대종사와 함께한 비주얼세상 및 총지종의보, 총지문화계소식, 7면 교계소식 및 생활속의 권리지킴이, 8면 우리사원 우리스승님으로 꾸며졌으며 총지종보는 종단 홍보지의 역할과 언론으로서 교유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 신규스승발령 및 인사이동

지난 12월 13~14일에 걸쳐 진일심, 정원심을 신규 스승에 발령하고 심인 주교에 법등(총지사), 해정(관성사), 연등원(지인사), 자선화(단향사), 진일심(정심사), 시정(법천사), 무공(운천사), 지공(밀행사)을 각각 주교와 신규스승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신·년·사

더욱 굳은 신심과 금강같은 지혜로 신사년을 맞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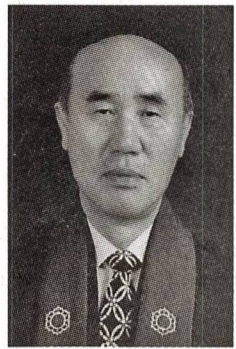
기대와 희망으로 열었던 경진년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주면서 역사의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도 있습니다. 나라 안의 사정을 보더라도 딱한 사정은 매일반입니다.

은 마치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불타는 집에서 놀음에 빠져 죽음조차 모르고 있는 아이들의 세상과 같습니다.

사회와 중생을 교화 구제하는 이 거룩한 불사를 행하는 우리는 올해 특별한 사명감으로 일체승적 및 교도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불기 2545년, 총기 30년 신사년 원단에 법장원장 안효강 합장



사랑과 포용, 믿음과 존경심이 넘쳐흐르는 승단이 되길...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렵고도 힘겹게 살아왔던 지난해를 슬프게 보내고 신사년 새해를 조용히 맞이하면서 적어도 새해에는 나라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자기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루 하루가 신명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사님의 높으신 뜻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불철주야 교세발전과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는 종령님과 전국의 스승님들의 법체가 더욱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우리 보살님과 각자님의 가정에도 항상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단의 모습도 시대와 환경에 걸맞게 새롭게 태어나야 함은 물론 날로 변화해 가는 첨단문화와 생활의식에 상응한 교화방법과 포교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대승적 견지에서 오랜 세월 교화일선에서 수행해오신 스승님들의 생생한 경험과 증득한 사례를 거울삼아 사랑과 포용, 믿음과 존경심이 넘쳐흐르는

승단상을 확립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언행자로서 보다 자기수행에 철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고각하(照考脚下)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불기 2545년, 총기 30년 신사년 원단에 중앙종회회장의 강 합장

쉽없는 정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올해도 어렵겠어 새해 아침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고 한발 앞서는 운영 계획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는 옛말이 더욱 실감나는 한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번 돌리니 부처가 보이네



몸은 열심히 정진하여 승전하고 뺨은 복진하여 다시 용되려고 사바에 왔구나. 그래서인가 신사년 새아침은 무척이나 밝구나.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의 희망으로



신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가 되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광광의 빛이 사방세계 두루 비추시니 잠든이 깨어나고 눈먼이 눈뜨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새 썩이 울습니다.

총기30년 신사년 새해 아침 대구·경북교구장 수인사 주교 원 봉 합장

총기30년 신사년 새해 아침 서울·경인교구장 밀인사 주교 원 송 합장

총기30년 신사년 새해 아침 부산·경남교구장 실보사 주교 해 합장

총기30년 신사년 새해 아침 충청·전라교구장 법흥사 주교 법수원 합장

거짓 희망과 실패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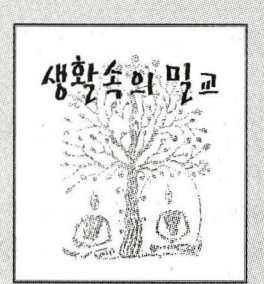
박준성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교육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국근현대사)

2000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그토록 요란스럽게 새천년 장미빛 희망도 계절만큼이나 싸늘해졌다. 희망의 선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고리는 개혁이었다.

구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대동아 공영권을 확대하여 일장기가 영원 무궁도록 펼쳐가는 세상이 '희망'이라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를 찬양하고 정당화하면서 순종과 체면의 노예의식을 불어 넣으려는 일제의 국민가요이다.

크게 개선안, 개혁안, 혁신안으로 나뉘어 있다. 개선안은 삼정문란의 원인을 수취질서의 해이나 운영상의 폐단으로 보았다. 제도자체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을 개선하자는 지배층 중심의 보수적 방안이었다.

어느덧 21세기의 첫해가 가고 반해 불교에서의 참회는 자성참회이다. 세간에서는 이런 연말연시가 (自性懺悔)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면 으레 한해의 반성의 소리 진정 누우치고 스스로에게 참회하가 나오게 된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성참회는에서도 근현대사 과정에서 저지른 완전한 참회라 할 수 있다.



밀교종단에서는 모든 불공과 의식에 서 삼엄으로 지은 업의 참회로 시작한다. 밀교에서 보면 삼엄은 삼밀(三密)이다. 삼밀은 법신불의 깊고 미세한 진신의 활동이므로 범부중생(凡)의 과거의 죄를 누우치고 부처의 경지에서 보면 비밀한 경지가 남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뒷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실제적 우주와 그 본질을 같이 하는 인간에게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견지에서 여래의 삼밀은 그대로 중생의 삼내고 용서를 청하는 결성한 태도 밀이기 때문이다.

정보다이렉트

美 20세기 대표유품 선정, 메추리알 방사선 부작용 줄이고 수명 연장, 천주교 '쇄신과 화해' 참회문(요약) 등 다양한 정보와 광고.

연탄소비 14년 만에 늘어 1986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수도권 연탄 사용량이 1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가 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 총지종 12월 약사

총지종 12월 약사는 금번에 통리원에서 준비하여 발간한 총지종 교사 자료집에 근거하여 72년부터 89년까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9년 이후 자료집은 정리 되는대로 실겠습니다. (편집자 주)

- 72년 2월 경북 월성군 안강읍에 본존본궁과 설단불사를 올렸으며 자비혜전수를 주교로 임명
- 12월 경주시 서부동에 본존을 봉안하고 설단불사 거행하여 현수님을 주교로, 해인행 전수님을 보조승으로 24일 각각 임명 발령함.
- 24일 스승전원과 교도수가 참석하여 서울선교부에 개종불사(창교식)를 거행.
- 27일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선교부 개설하고 설단불사를 거행하고 시계월전수님을 주교로 임명
- 29일 청주시 북문로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설단불사를 거행하여 대자행전수님을 주교로 임명
- 73년 1월 경주시 성동동에 선교부 건축에 착공하여 불단이설불사 거행
- 10월 부산선교부에서 수행하는 손정환(源堂)각자님을 정사로, 서대문선교부에서 수행하는 최만현(正顯)보살님을 전수로 각각 임명발령.
- 12월 중등등록신청서와 재단허가신청서를 서울시 공보과에 제출
- 18일 중등등록신청서와 재단허가신청서를 서울시 공보과에서 문화공보부에 전달
- 통리원 회의실에서 원의회 개최하여 총지 2년 통리원 및 전당건설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의회(스승공제기)설치 및 회칙결의안 결의함.
- 20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설단불사를 거행하고 정혜원전수를 주교로 임명
- 27일 부산시 부평동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설단불사를 거행 손정환(源堂) 정사를 주교로 임명
- 74년 18일 경주선교부에서 원의회를 개최하여 서대문선교부에서 수행중인 윤덕화행자를 스승으로 기용하여 불국선교부 주교로 임명하고 총지종을 정리하여 신년불공전에 배포한 다음 사항을 의결함
- 75년 14일 창고, 성도가, 부모은혜가, 보은의 노래, 자성일을 지키자, 성흔찬가 등 예불가 6곡을 작곡 발표함
- 16일 역학강습회를 개최하여 사과택일법, 제삼법, 생극법, 불명과 작명법, 수리법 등 강습
- 24일 밀교와 현교의 각 경전 중에서 수도와 세속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번역하여 종목별로 편찬한 경전으로서 목록을 부처 한글로 번역하였으므로 전수와 정사들의 교화에 필요한 교과가 되는 불교총정 초판 3,000부를 시사문화사에서 발행
- 76년 마산시 서역동에 광서원당을 개설, 설단불사 거행 총지서원당에서 근무하던 안정희(淸信華)전수를 주교로 임명함.
- 77년 16일 총본산에 총본산 건설에 전초한 목자가를 기념하기 위한 성불탑 건립. 탑신은 오석으로 사방크기 2척, 높이 8척, 지상에서 관석원상까지 17척의 거대한 탑이다. 설치사에서 수행하는 민문기(鎔鑄)각자님을 정사로 임명하고 육합서원당에 주교로 임명하고, 홍기영(六道行)보살을 전수로 임명하여 육합서원당에 근무하게 함.
- 27일 육합서원당 주교 이초자전수님을 총지사 주교로 전임 발령
- 총본산 중앙사원의 명칭을 총지사라 하고 2층 서원당
- 에 불단을 개설하고 대종사님과 이초자 주교가 총지사 주교 입주
- 78년 27일 부산시 남구 광안동에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하고 사명을 총지종 자식사라고 함.
- 79년 1월 정옥선(眞如行)스승을 복직, 인사로 임명하여 총지사 근무를 명함
- 10월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관서사 대지 및 건물매수
- 80년 19일 성남시 상대원동에 시복서원당 설단불사를 거행함
- 21일 정각사에서 근무중인 대법사 이무형(滿庵)을 해정사 주교로, 정각사 근무의 대인사 박혜선(一性慧)을 해정사 근무로, 해정사 주교 대법사 김충태, 대인사 최상조를 정각사 근무로 각각 이동 발령
- 82년 13일 정종순(法水願) 인사를 임명, 개천사 근무를 명함
- 16일 개천사 정종순(法水願) 인사를 정각사로 전보발령함
- 23일 대법사 권태벽을 정사 고무경직을 면하고 응신서원당 주교 복귀를 명함
- 83년 26일 총지사 근무중인 법사 이몽원(法空)을 가정사정으로 의원휴직을 명함
- 28일 부산 정각사 정각원(석혜선)대전수님 숙환으로 열반
- 38회 긴급 임시원의회 개최하여 정각원(석혜선)대전수 사망에 따른 장의주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함
- 84년 8월 을축년 달력 10,000부 제작, 산하 각 사원에 배포
- 17일 수인사에 근무중인 인사보 김춘자(一淸行)를 인덕서원당 주교로 임명
- 31일 장래 총본산을 이전할 계획으로 총복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에 임야 2,278,612㎡ 매입
- 86년 8월 김태완(綠靜) 재단이사장의 사임에 따라 현 총령 이원재(歡當)가 취임
- 김현우(義剛) 재단상임이사취임, 현 통리원장 안중호(晩岡) 취임
- 11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만보사 신축부지 매입
- 20일 수유리 소재의 건물 및 대지를 매각함에 따라 도봉구 미야동에 건물을 매입하여 설치사 이전불사
- 23일 임직원의 의사 및 기로원 결의로 사용하기 위해 호성주택 매입
- 88년 1월 가정 "종단정화추진위원회" 정사 31인의 요청으로 승단총회 소집. 종단발전 촉구 3개항의 결의문 채택하고 승단의 대동참과 대화합을 촉구
- 1. 종단과 승단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부 승직자(정사)는 응분의 참회를 표시할 것
- 2. 무능한 현 총회회를 즉각 해산할 것
- 3. 지인사 신축문제는 교도간의 화합과 승단의 화합이 원만한 이루어진 뒤에 신축토록 할 것.
- 26일 지인사 주교 정제(正濟)와 동사원에 근무중인 묘법정(妙法定) 정계건에 관한 시무위원회 소집
- 27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에 있던 응신서원당을 정사사로 개명 이설
- 총무시 북산동에 상락서원당 설단 불사를 거행하고 정각사에서 근무중인 정법계(金牟子)인사를 총무 상락서원당 초대 주교로 발령. 정각사에서 행자로 근무중인 정미숙양을 교무부로 발령



총지화 | 총지사 주교

### 지·상·설·법

## ‘불공하는 마음’

불교는 아는 것,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마음을 닦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불공이다

이 설법은 지난 12월 17일 자성일 불공때 총지사에서 총지화전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되도록 설법의 내용을 그대로 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오늘 무엇을 가지고 설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천하여 현역 부처님 말씀과 주옥 같은 원정종조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다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시 부처님과 종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은 종조법설집 116페이지를 하였습니다. 불공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정진중에 특히 知足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언제 불교는 아는 것,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천은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며 마음을 닦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불공입니다. "철일정진은 먼저 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반드시 탐사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옴으로 知足

귀드라구. 나한테 이야기할 때나 불공할 때는 보살이 되었다가 돌아가면 귀신님이 되드라구. 내가 그랬어. "보살님! 아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무어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아들을 보는 눈, 아들을 보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술을 못끊는 거예요. 왜 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보살님이 만들었어. 그 때 때문에 거울을 보고 아들을 용서할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불공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각자님 보살님들도 개개인이 마음을 닦는 불공을 드려야 가정으로나 사회활동에서도 한 시 즐거우며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한 自性佛供에 반드시 공덕성취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일찍 나오는 것이 공덕성취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 "정진중에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기로 힘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철일정진은 특히 탐·진·치를 斷除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주간공부가 되는 까닭입니다." 제가 10월달부터 교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안 가진 이유가 뭐냐. 절로 뿔나게 입이라 자꾸 공중이나 말을 시키면 나는 꾸밈없이 말을 털어놓는



고 인격을 완성하는 주간공부가 되는 까닭입니다. 철일공부에는 四일 고개가 있고 삼철불공에는 열 하루 고개가 있고, 칠철일 불공에는 이십오일 고개가 있고, 백일불공에는 육순고개가 있고, 평생수행에는 사년고개가 있느니라 이것을 알아서 속지 말고 용맹으로써 고개를 깨달아 넘어가는데 평탄한 길을 얻어서 행복하게 이르게 되느니라."

제가 옛날에 정각사전수님이 심장병으로 숨을 못하고 몇 해를 교도들이 부축하여 간병하고 하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교도들에게 제가 이랬어요. 평생 교화에 힘쓰다가 늙고 병들었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 줘고, 똑똑하고, 상상하고, 열정이 가득찬 스승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어요. 우리 교도들 바람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해요. 이게 변화에 대해서도 흐르십니다. 우리 말법 은 열화미소,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 가삼존자가 살짝 미소짓는 그런 불일문자, 불보살이 필요없이 법계와 내가 일체로 똥고 들어가는 이 총지의 최상의 7억7천만 존재지인, 육자지인, 스스로가 그 지인만 가지고 내음을 통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항상 정진과 내가 틀이 아니다. 불공과 내가 틀이 아니다. 너와 내가 틀이 아니다. 법계와 내가 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일정진은 먼저 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반드시 탐사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옴으로 知足으로써 이 시련에 속지 말고 극복하여야 철일후에 공덕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으로써 이 시련에 속지 말고 극복하여야 철일후에 공덕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어떤 아주 오래된 교도님인 보살님한테 질문이 왔어요. "아들이 술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하면 술을 끊게끔 할까요." 하는 질문이예요. 내가 그 보살을 보니까 많이 닳았어. 많이 닳았는데 진실어증선미어 무위심내기비심(천수경) 즉 그러한 쪽으로는 큰일 났더라. 근데 전수님이 회사 많이 하면 좋다해서 회사를 태우면서, 또 지인을 7시간 넘게 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눈이 지인과 불공 중에는 보살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보면 그 아름답고 선한 보살의 눈이 귀신눈으로 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전랑을 할 때 한되 박이라도 싸게 할려고 전랑을 팔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위장병을 나을려고 이 전랑을 팔아서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위장병이 모두 나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다 심지를 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지의 마음, 서원의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다시 불공하는 보리심 자체를 가지려는 거예요. 불교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달라지기 위한 공부입니다. "정진중에 몸으로 약한 행동과 입으로 약한 말과 뜻으로 약한 마음을 없애기로 힘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철일정진은 특히 身口意 三業을 끊어 없애

### 하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밀교와 총지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풀이로서 교도들에게 보다 쉽게 밀교와 총지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편집자주)

총지종 종명인 총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총지의 뜻은 범어 「대리니」를 번역한 말입니다. 총섭임지(總攝任持)란 뜻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인데, 우리 총지종의 총지의 뜻은 가르킨다(指導)의 뜻으로 모든 중생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복되게 사는 길을 지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밀교정신으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데에 지인의 공덕을 생활에 활용함에 있어서 지도하고 수행해서 성불하는 지름길을 지시해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총지라는 종명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총지진언(總指眞言)으로서 지도하고 지시하는 종파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총지」라 하면 세간에서는 總(모를 총, 합

## 총지 생활 광고

본 광고면은 교도 여러분들을 위한 면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 축하인사 및 홍보 등 교도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총지생활광고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52-1080~3  
FAX (02) 552-1082  
www.chongji.or.kr  
(게시판, 방명록 이용)

### 왕자님 첫돌을 축하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승호(법일)님의 첫째아들 지원이 태어난지 2001년 1월 5일이면 1년이 됩니다.

앞으로 무럭무럭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아바 엄마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항상 서원합니다.

아빠 윤승호, 엄마 신다자

### 축 탄생

#### 공주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법항사 교도 수심제보살이 지난 11월29일 18년만에 득녀를 하였습니다. 수심제보살은 부처님의 진언공덕에 자식을 낳을수 있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법항사 주교 법수원 합장

### 축 결혼

####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혜서원당 교도이며 합창단 총무 노진숙 보살 장남 문성민군의 결혼식

신랑: 문성민 신부: 허소라  
일시: 12월2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신답동 명문예식장

정혜서원당 주교 이 지성 합장

### 축 결혼

####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산 정각사 교도인 김팔연 보살님 차남 안준형군 결혼식

일시: 12월 17일 12시 30분  
장소: 온천예식장

정각사 주교 정정심 합장

### 축 결혼

####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산 정각사 교도인 박말연 보살님 장남 황기호군 결혼식

일시: 12월17일 12시  
장소: 동부산 농협 기장지점 웨딩홀

정각사 주교 정정심 합장

### 축 결혼

####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산 정각사 교도인 박혜숙 보살님 차남 이병화군 결혼식

일시: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온천예식장

정각사 주교 정정심 합장

###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대구 제석사 주교 우승님 부친 열반

일시: 12월 24일 저녁 8시경  
장소: 포항 선린병원  
발인: 12월 26일 오전

제석사 주교 우승 합장

###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중생들이 자비와 화합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간의 화합, 계층화합, 국민화합, 민족화합을 바랍니다

편집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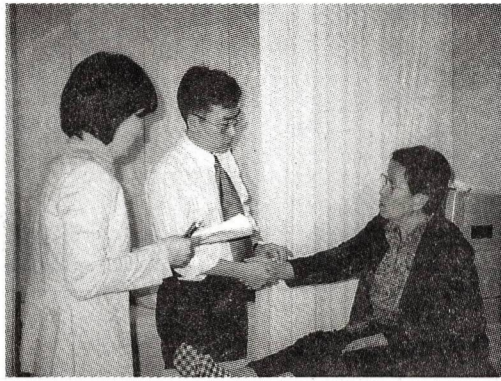


# 『노인 장기요양 보호정책』 수립방안 공청회 열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같은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이 고령인구의 증가속에 정부의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이라 판단되어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에 달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의 87% 정도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매유병률도 8.2%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공양의 전통적인 효 가치관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부담을 포함하는 장기요양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강조되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에 달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75세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

2005년까지 99,0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장기요양보호 방안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시설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시

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요양시설 109개 3,270명, 전문요양시설 55개 2,805명, 요양병원 19개 1,121명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8,852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79개 15,463명, 주간보호시설 306개 1,933명, 단기보호시설 416개 2,106명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4,13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호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본적으로 재가·지역사회 보호서비스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재가·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시설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공급을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및 신축·증축·개축을 통하여 확충시키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재가·지역사회 보호체제를 구축·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셋째, 재가·지역사회 보호서비스체제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넷째, 소요재원은 공적재정(사회보험부담 또는 조세부담)으로 조달하여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민중문화이야기

## 천수대비가

이현주

천개의 눈을 가지신 초월력을 지닌 관세음보살에게 두 눈 다 먼 아이들을 위해 한쪽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한 개의 눈만이라도 달라는 한 어머니의 보편적 모성애가 관음신앙과 연결되어 종교적 신심으로써 기원

신라 경덕왕(742~765)때 회명이란 여인은 경주 한기리에 살았는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해 갑자기 눈이 멀자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가서 천수대비(관세음보살) 석좌 앞에서 아이를 하여금 그녀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 올리게 하였는데 그 뒤 다시 눈을 떠서 광명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권 3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조에 전한다. 그 노래는 전체가 10구절로 나누어지므로 흔히 십구체(十九體)양가로 인정받고 있는 향가 <천수대비가>이다.

무릎을 꿇으며  
두 손바닥 모으와  
천수 관음 전(前)에  
비음을 두노이다!  
천(千)손에 천(千)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듬기  
돌 없는 내가  
하나야 그기 고쳐올러라  
아오 내게 꺼져 주시면  
놓되 쓰을 자버어 얼마나 큰고  
(양주동 해묵의 현대어)

이 시는 1·2행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두 손바닥을 합장하여 비는 모습을 제시하고 3·4행에서는 천수대비의 위신력에 기원자의 처지를 고백하며 소망을 청원하며, 5행에서는 '아오'는 현재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환기시켜 관세음보살이 자비심을 발리 베풀어지도록 장치한 감탄구이다. 끝으로 제 6행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예찬하고 있다. 현존하는 향가의 대부분의 작가층이 화랑이나 승려 등의 남성인데 반해 이 작품의 저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특이할 만하다. 천개의 눈을 가지신 초월력

지닌 관세음보살에게 두 눈 다 먼 아이들을 위해 한쪽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한 개의 눈만이라도 달라는 한 어머니의 보편적 모성애가 관음신앙과 연결되어 종교적 신심(信心)으로써 기원하는 종교적 서정시이다.

새로운 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눈을 찾아야 한다. 진실이 왜곡되고 부패와 타락이 합법화되는 세상에서 망각하고 사는 것들에 대한 진실이 빛을 보기 위해서 말아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삶의 지표를 쫓아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심안을 열고 살펴야 할 진리와 진실의 해명을 위해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 동해중학교소식

동해중학교는 33년의 역사 속에서 열악한 교육현실 가운데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새천년을 시작합니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  
금년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이 마감되었는데 3학년 287명중 실업계 지원자는 115명이며, 최종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 전원 좋은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민속사관고등학교 1명, 부산과학고등학교 2명(이상 합격확정), 해사고 5명, 외국어고 2명, 기계공고 1명 등 11명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 전자공고 20명 등 9개교 65명이 전자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상업계 고등학교, 성심정보고등학교 8명 등 6개교 19명이 상업계고등학교에 지원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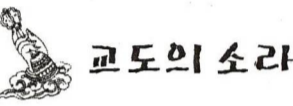
**신정식 영어교사 별세**  
본교 영어과 신정식선생님이 평소 간염으로 고생하였는데(94년도에 1개월, 98년도에 4개월간 간염으로 휴직한 바 있음), 최근에 간경화로 악화되어 11월 1일부터 병가를 얻어 투병하던 중 지난 11월 29일 저녁에 침례병원에서 별세하여, 11월30일 아침 10시에 학교운동장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애도하는 가운데 영결식을 가졌다. 전직 김병준 교장선생님과 손준달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전직 선생님들이 참석하였으며, 부임 동기인 탁상달 선생님과 학생회장 송한결군이 조사를 하고 12월 1일 시립 영락공원에서 화장하였다. 신 선생님은 1958년 3월 경남 거창에서 출생하여

청주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청주사범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였으며, 호주에서 현지 어학연수를 마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90년 9월 1일 우리학교에 부임하였으며, 유족으로는 부모님과 부인,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두었다. 영식의 왕생극락을 빕니다.

**제1회 동문회 송년의 밤**  
본교 제1회 동문(회장 김병훈 동해중학교교운영위원장) 20여명이 12월12일 양자강 부패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10여분의 선생님들 모시고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으며, 동문회에서 앞으로 학교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겨울방학**  
12월 22일 종업식을 하여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40일간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2001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봄방학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을 발표하였다.

**방학중 과학동산 실시**  
본교 희망학생 48명이 참가하여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4시간씩 과학과목의 각종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가졌다. 마지막날은 LG과학관을 견학하여 기초과학분야의 학업성취동기를 제공하였다.



경주의 소리

합장은 금강합장이라고 하는 특이한 합장을 하고 금강권을 하며 진언을 외었는데 현교는 왼손을 쓰지만 총지중은 오른손을 쓰고 왼손은 안쓰더군요.

저번주 일요일 갈까말까 하다가 한번 가봤습니다. 교회는 친구들과 같이 가봤지만 절엔 친구를 데려갈수 없었던것같고, 불교신자 이면서 교회나 절은 별다른 생각이 많이 다니며 놀았지만 지금은 여러곳을 돌아다니는게 재미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갔습니다. 역시 다르더군요. 천수경을 외는건 친근감이 들었지만 합장은 금강합장이라고 하는 특이한 합장을 하고 금강권을 하며 진언을 외었는데 현교는 왼손을 쓰지만 총지중은 오른손을 쓰고 왼손은 안쓰더군요. 여쭙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낯설음이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저부에 없고 나이 많은 분들만 있어서 조금 그랬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울산엔 별로 사람이 없지만 서울엔 사람이 많겠지요? 그럼 성불하세요.

(울산 최민혁)

현재의 한국불교계는 참 대승불교 정신의 구현을 추구하는 실천불교, 생활불교의 흥왕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가 다른 종교에 뒤지지 않을려면 실천불교, 생활불교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교에 대해서 바로

밀교(비밀불교)의 가장 강점이 바로 생활속에서의 체험, 현실속에서 진리를 마음으로 듣고 보고 깨쳐서 미래를 예견하는 일과, 이타자리적인 실천행입니다.

계 알아야 수행정진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셔서 같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출가불교는 종손(宗孫)으로 전통을 지키고, 뻗어나갈 지손(支孫)으로 재가불교가 일어나 흥왕해야 실천불교 생활불교가 도도한 물결로 한국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전통불교는 믿음과 교리의 이해와 자기기도에는 강한 면이 있지

(법현 정운감 합장)



### 늘 새로운 맛을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새광명회관

청정화보살합장

광주직할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앞 (법양사옆)  
전화:(062)653-3929, 673-1052



### 늘 신선한 야채로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초정쌈밥

자비심보살합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37-12  
전화:(02)409-3477



총기문화계 소식



홍순지 "세속에서의 명상" 성황리에 막내려

독특한 음색으로 불교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홍순지씨(총기종교국광사 교도)가 12월 2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세속에서의 명상"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감했다. 지난 10월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의 전국 대도시 투어 리사이틀의 마지막 공연인 이날 행사에는 주인공인 홍순지씨 이외에도 오프닝 공연으로 이정훈씨 등의 포크 송과 "청산"이라는 노래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허철영씨, 그리고 김승택씨의 해금 독주 '낙화' 등

이 곁들여져 무대를 빛내었다. 홍순지씨는 이날 공연에서 '원왕생가', '빈 몸이 끊임없이', '찬기과랑가' 등 10여곡을 열창했으며 그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은 앞으로 불교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정통 성악가 홍순지씨는 지난해 '세속에서의 명상'이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출판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내년 3월에는 같은 타이틀의 제2집이 출판될 것이라 한다.

문소리의 영화세상



인랑

1960년대 일본의 암흑기를 조명한 인랑. <인랑>은 영혼을 향해 수렴해가는 영화다. 케르베로스, 수도경찰, 수도경찰내 비밀조직 '인랑', 늑대와 빨간 두건, 빨간 두건과 엄마, 그리고 일본이 영혼의 말바닥에서 메아리친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오시이 마모루는 기동경찰 헤트레이버 공작기동대 등 그의 작품에 사회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하이퍼 리얼리즘의 세계를 구축해 왔다. 수도경찰 특기대 대원인 '후세가즈키'는 섹트일당을 쫓아가다 한 소녀가 눈앞에서 자폭하는 일을 겪게 된다. 그녀는 분명 지하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후세에게 있어 쇼크였다. 그녀의 납골당을 찾던 후세는 죽은 소녀의 언니라고 하는 '아미미야 케이'를 만난다. 아미미야는 후세에게 고전동화인, <빨간 두건>을 건네준다. <빨간 두건>의 모티브는 죽은 소녀=빨간두건. 인랑=늑대라는 비유관계를 암시한다. 또한 아미미야와 후세의 관계와도 상관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미미야의 목소리에 의해 들리는 <빨간두건>의 이야기에, 수도경찰에게 쫓긴 소녀가 늑대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버리는 영상이 겹쳐지는 충격은 비유의 성을 초월하여 아주 공포스럽다. 그리고 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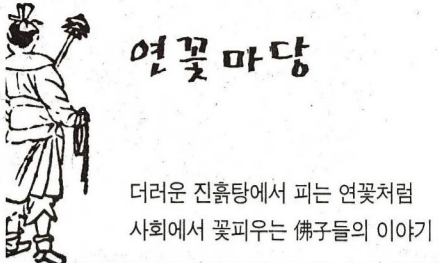
다 늑대에게 속아서 빨간 두건은 엄마의 살과 피를 먹는다. 엄마는 대체 뭐가? 엄마는 일본이 아닐까. 일본을 따르는 일본인이 일본을 먹고, 그리고 자신도 늑대에게 먹혀버린다. 특기대의 살인병기로, 인간의 감정을 버리고 동물적인 폭력성만 지닌 늑대같은 인간으로 자란 후세, 마모루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후세의 존재 이유는 영화의 중요한 메타포를 형성하는 '빨간 두건' 이야기 속의 늑대이다. 소녀는 그에게 끊임없이 동화를 들려준다. "엄마 귀가 왜 이렇게 길어요?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가 왜 이렇게 커요?" 결국 후세의 숨겨져 있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제기였지만 후세의 마음에 머물고픈 그녀의 소원은 그녀가 특기대를 고립시키려는 공안부의 사주를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오시이 마모루 사단인 오기우라 히로유키 감독은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현역 특기대원과 테러리스트의 사랑을 통해 휴머니즘의 존재에 대해 질문한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남자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여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모습 이 아닐까. 그 어떤 실사영화보다 과장 없는 캐릭터의 내면 연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비주얼 밀교. 글/그림 정수일. 밀교의 본질 세가지는 첫째 심비성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비밀스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불교에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밀교입니다. 두번째로 상징성입니다. 심비성과 상징성을 표현한 것이 삼밀입니다. 대성사님, 삼밀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막... 말하려고 했는데... 삼밀을 이기려고 질문해요. 삼밀이란 신밀, 구밀, 의밀 즉 신구의 세가지 부처님의 업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삼업의 활동은 미묘하여 범부중생은 알 수 없는 경계이므로 이를 일컬어 삼밀이라 합니다. 안 즐리세요? 양치질 좀 합니다. 밀교에서는 우주본체를 인격화한 것이 대일법신여래이므로... 신밀은 우주간의 전체적 활동이며 구밀은 우주간의 모든 소리, 언어의 활동이고 의밀은 우주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 듣기좋은 그 소리는 우주의 구밀입니다. 하하! 그 움직임은 우주의 신밀이며 아파다고 생각하는 정신활동은 의밀이고요. 하하하... 셋..... 오늘 삼밀을 제대로 배우네. 세번째로 의례인데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처님의 체현을 수행자가 상징을 통하여 추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화장을... 하... 하... 누가 내 코를 막았어...?

총기동보의 보강 알레르기성 비염. 김옥희 | 김내과 의원 원장. 찬공기나 급격한 온도변화, 담배연기, 방향제, 스프레이 등을 피해야.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점막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한 증상이다. 최근 주거 환경의 변화에 의해 알레르기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10~15년 동안 기관지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이 2배로 증가하였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과 유사한 감기는 갑자기 발생하고 병의 경과가 일주일 정도 계속된 후 자연 치유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전신증상이 동반된다. 감기에서는 맑은 콧물보다는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런 콧물로 변한다. 반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이 아침에 심하고 오후에는 별로 없으며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되고 장기간 계속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꽃가루인 경우에는 꽃이 피는 계절에만 증상이 생기므로 계절성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발작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아침 일찍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에는 알레르기성 체질, 알레르기 반응의 항원이 되는 원인물질, 유발인자 등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들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체질은 일종의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므로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는 집먼지 진드기이다. 집먼지 진드기는 담요, 양탄자, 천으로 만든 소파, 봉제인형에 잘 서식하며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한다. 그 외에도 꽃가루, 동물의 털, 비듬이 원인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모든 자극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찬공기나 급격한 온도 변화, 담배연기, 방향제, 스프레이 등을 피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냄비뚜껑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시켜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고 특히 태우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와 공기조절기는 곰팡이가 자라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김내과 의원 (053)792-5115

요가 하타요가에서 쿤달리나트라까지. 요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요가 행자가 쓴 책. 이 책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고전 요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으로 10여 년 간 현장에서 요가를 지도하고 실천해온 저자가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은 책으로서 요가 전반에 관한 이론서이면서 또한 실천 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요가 전공 박사로서 요가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현재 요가 수련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요가 행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될만 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요가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인 5천년 역사를 가진 요가의 본질을 밝히는 한편, 발전과 변모 과정에서 이름난 요가인 뿐 요가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오늘날 요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요가의 본질로 돌아갈 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영 저 / 신국판 / 368쪽 / 78,000원. 저자 이태영 이태영 박사는 숭실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0여 년 동안 동국대를 비롯해서 숭실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요가 연수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요가의 이론과 실천>, <업사상>, <초월의 길 해탈의 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썼다. 사원에 처음 오신 신도분을 위한... 처음 불교에 입문하고 절을 찾는 분들이나 또 사찰에 오래 다닌 신도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찰의 예법과 불자의 예절을 잘 모르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이 책은 이런 초신자들을 위해 많은 사친과 함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사원예법과 불자예절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스님들의 말 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대로 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책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어서 처음 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소임도 살아보고, 종단의 포교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본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포교에 좀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저자의 머리말 성수스님저 / 46판 / 240쪽 / 25,000원





연꽃마당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에서 꽃피우는 佛子들의 이야기

부산 덕화사 교도 한혜민군 최연소 서울대 합격

부산의 실업계고교 학생이 15세의 나이로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에 특차로 합격, 최연소 합격자의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2001학년도 수능에서 391.3점을 받은 부산 대진전자정보고 전자계산기학과 3학년 한혜민군(15세, 부산 대진전자정보고3), 부산 덕화사 교도인 한갑수 각자, 송복득 보살의 손자 한혜민군이 지난 12월 22일 특차모집 합격자 발표 결과 서울대 사상 최연소로 사범대 국민윤리교육학과에 합격하였다.

조부모님 한갑수 각자와 송복득 보살은 22년 전부터 총지중 덕화사와 인연을 맺은 독실한 교도이며 이번 시험에 100일 기도정진으로 손주의 합격을 대비로 지나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려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기뻐하였다.

한군은 1997년 2월 초등학교 졸업 후 6개월간의 독학 끝에 중학교과정 검정고시에서 부산 지역 수석을 차지했다. 지난 97년 2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같은 해 8월 부산지역 고교입학 검정고시에서 최연소 최고득점으로 합격했다. 그 이듬해 한군은 특수목적고인 부산국제고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대진전자정보고에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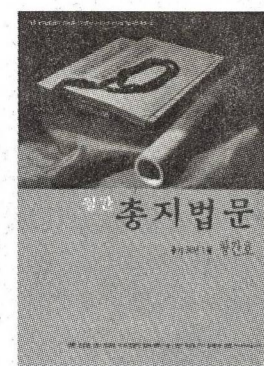
한군은 재학 중 인터넷 정보검색기능사 등 8개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고 전국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 컴퓨터와 학과 공부 두 가지를 해냈다. 한군은 "법학과에 진학해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개척 분야인 컴퓨터와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이었으나 성적이 모자라 진로를 수정, 컴퓨터에 윤리학이나 철학 등 인문학을 접목해 인간의 얼굴을 한 컴퓨터 공학을 추구하는 기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군은 공부하는 중에다 명상과 불공,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과 율마니 반배후의 육자진언으로 슬럼프를 벗어났다고 하였다.

월간 '총지법문' 창간 교화 설법지 매월 발간

승단의 스승님들을 위한 포교용 잡지가 매월 발간하게 됐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화활동을 펼쳐왔던 승단 스승님들에게는 설법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고통이 말끔히 해소될 것 같

다. 그것은 풍부한 법문자료를 법장원에서 마련, 포교 설법잡지를 매월 간행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로, 포교 설법지 월간 '총지법문'의 발행이 그것. 매월 5일, 4X6배판으로 발행되는 '총지법문'은 교화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교화방편 방안마련과 다양한 설법문안, 경전자료들이 게재될 예정이다. 금년 1월 5일자로 발행되는 창간호는 특별기고의 '불교와 자원봉사', '종교와 스포츠', 4개의 설법문안과 설법경전자료, 그리고 불교교리강좌, 경전탐구, 경론소개, 교리문답, 종단홍배 이지 소개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특히 종단의 만다라조성봉안과 관련, 만다라를 기획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잡지제작의 책임을 맡은 김홍배 연구원은 "포교설법지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대중포교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포교설법지의 발간을 시작으로 종단은 다양한 불사들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대구 개천사 제1회 찬불가 발표회



교총지중 장교절 합창발표회

대구 개천사에서는 총기 29년 창교절 기념 찬불가 발표회를 지난 24일 12시 30분부터 개천사 서원당에서 개최하였다.

개천사 합창단(회장 최지영, 총무 김광자) 30명은 찬불가 우리총지중(최영철곡)을 시작으로 남의침묵(변규백곡), 구름 걷힌 달처럼(김희경곡), 불교합창단가(최영철곡)등 8곡과 가곡 3곡을 배해근씨 지휘와 조선영씨의 피아노 반주로 맞춰 발표하였다.

특히 대구 육초초등학교 김두영양의 피아노 독주 특별출연과 경북대 국악과를 나온 류정아의 가야금 산조 특별출연은 많은 교도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개천사 주교 지광정사는 뜻깊은 창교절을 기념하여 부처님 법음을 불보살들에게 음성공양하기 위하여 귀한 노력을 다해주시는 지휘자와 단원들에게 격려를 하였으며, 청정법신 대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가호가 교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하였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주최로 지난 12월 15일 오후 6시부터 세종정 하림각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사 300여명과 총지중 법장원장 효강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반야심경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의 경과보고, 법어의 식순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은 어려운 사람과 사회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법어를 하사했다.

또한 이날 2시부터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세미나가 열려 불교는 오래전부터 중생의 고통과 함께 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양적발전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였으며, 질적 성장을 위해 재원의 확보, 인력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들의 참여와 확충 및 자원봉사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 김근태(민주당), 허순봉(한나라당), 이양희(자민련), 한인옥(이회창총재 부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법장원 총무원 단기 유학

법장원의 이종석(화령) 총무원이 미국 뉴욕의 스토니 브룩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유학한다. 법장원 밀교 연구소의 총무원이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사상사업단(BK21)의 연구원을 겸하고 있는 이종석 총무원은 BK21 사업단의 지원으로 뉴욕 주립대에 9개월 동안 파견된다. 뉴욕 주립대의 Korean Studies Program의 연구원 자격으로 약 9개월에 걸쳐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될 후 총무원은 이 기간 동안에 한국 불교에 대한 논문 발표와 강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함께하는 사람들' '클럽메드코리아'와 함께 자선행사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난 12월14일 클럽메드 코리아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선행사를 치렀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불우정소년, 장애아, 고아,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이며 장운창, 현정화, 김수영, 장재근, 황영조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모여 1달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본 종단 통리원 2층에 사무실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 총기위원장부성범죄 국제심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책임을 묻고 가해자를 재판하기 위한 '여성 국제전법 법정'이 지난 11월8일 일본 도쿄(東京)구단회관에서 열렸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군위안부 피해자 78명을 비롯, 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법정정은 아시아 8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첫날인 11월8일 수석검사가 기소장 발표, 한국·북한·대만의 피해자 증언, 9일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피해자 증언, 10일 일본군인 증언 및 전문가 증언과 검사보고가 있었으며, 11일 '현대의 무력분쟁과 여성'의 주제로 국제공청회를 통해 코소보 르완다 등 12개 분쟁지역 피해자 증언과 전문가 분석을 하였고, 12일 판결내용 발표와 소감발표 및 기자회견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히로히토일왕과 일본정부가 유죄임을 밝힌다"라는 유고전법재판의 수석판사였던 가브리엘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에서 '히로히토는 인간의 노예화, 고문·살인·인종차별을 비롯한 인도(人道)에 관한 죄를 범했다고 밝히며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동원, 마치 군수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강간을 자행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비준·가입했던 인신매매 금지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전시 성폭력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판결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회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위안부 관련 정보 공개 및 조사, 위안부에 대한 교과서 기술 등 8개의 권고안을 냈다.

묵은집 내려놓고 내면여행 떠나오

한해가 저물고 있다. 잠시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난간 해를 돌아보고, 오는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불교에선 각 사찰마다 수련회를 마련중에 있으며 수련회 외에도 대형사찰과 선원은 일반 시민을 위해 동안거(11월10일~2월7일)기간에 시민선방을 개방해 시민들의 참선을 돕고 있다.

서울의 도선사 무차선원, 화계사 국제선원, 봉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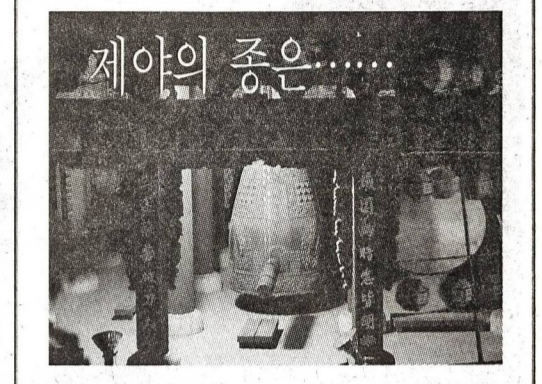
봉은선원, 선학원중앙선원, 무불선원, 수선회를 비롯 안양 한마음 선원, 인천 용화선원, 부산 해운정사·금모선원, 해인사 달마선원, 대구 보현사선원, 통도사 보살선원, 부산불교교육원 등 많은 사찰에서 시민선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속세의 문 두드린다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이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한편으로 된 불교 경전 1514종을 8만여 장의 경관(경판)에 담은 고려대장경이 700년 만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지난 93년 시작한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최근 완료, 총 5200만 장에 이르는 원문을 모두 15장의 CD롬에 수록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원문 입력에 이어 2차 작업으로 문장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각종 부호를 붙이는 표점(표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전산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종립 스님은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국가 사회의 지원과 2만 명에 이르는 후원회원의 도움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그 동안 국제 불교계에서 제대로 대접 받지 못했던 고려대장경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장경 CD롬은 비매품으로 후원 회원과 도서관·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새해 첫날이 밝는 자정,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는 새벽 새대문 개방과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타종, 즉 파루를 33번 친데서 연유한 것이다.

시계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해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짐작했다. 해시계가 보급된 후엔 좀 나아졌지만 밤중에 시간을 몰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맡은 큰 일 중 하나였다. 자시 축시 인시 등으로 불렀던 하루 12시간 중 밤에 해당하는 5시간, 즉 술사에서 인시까지는 이를 초경 이경 오경으로 나누어 각 경마다 북을 쳤다. 또 각 경은 다시 5점(오점)으로 나누어 각 점마다 징이나 팽가리를 쳤다. 한 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한 점은 24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소리를 모든 주민이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대문이 닫히고 주민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이경(밤 10시경)과,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오경(새벽 4시경)만큼은 종로 보신각에 있는 대종을 쳐서 널리 알렸다.

이경에는 대종을 28번 쳤는데 이를 인정(인정)이라 했고, 오경에는 33번쳐 이를 파루라 했다. 인정에 28번을 친 것은 우주의 일월성신 이십팔수(28별자리)에게 밤의 안녕을 기원한 것이고, 파루에 33번을 친 것은 제석천(불교의 수호신)이 이끄는 하늘의 삼십삼천에게 하루의 국태민안을 기원한 것이었다.

썩소리 탄소리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려는 아름다운 진언행자

"제일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미련없이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회이다."라는 어느 세계 챔피언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남을 못 올라오게 하고 짓밟고 모함하고 질시하여 자리를 보전하려는 현 세태를 보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에 남녀평등의 사상이 일반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교계에서 여성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운신의 폭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승직자로서 총지

중단의 행정최고 책임자의 소임인 통리원장 3년의 임기를 마쳤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커다란 총지중단을 무리없이 이끌었으며, 여성도 척박한 불교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또한 종단의 대 사회적 위상을 한껏 높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 총지중을 알려낸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생포교와 교화는 굳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종단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 사람의 열정보다 더 뜨거웠으며, 교도의 즐거움과 아픔에 항상 함께 하시어 즐거움의 눈물과 슬픔의 인간적인 눈물이 너무나 많으

셨던 분! 원칙과 법에 충실하신 분! 스승님은 조금 더 중생교화의 일선에서 종단발전을 위해 일해주시었으면 하는 교도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종단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소신에 스승님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스승님은 종단발전과 중생교화의 일은 진언행자로서 평생 사명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스승님은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통리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종단의 큰 대작불사인 만다라 작업과 밀교개론 발행 착수, 자서사 및 삼밀사 신축과 총지사 및 지방사원 전체에 대한 개조 및 수리

와 과산 수련원 지하수개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뜬히 완수에 내셨다.

만년 소녀 같은 웃음과 오랜 진언행자로서의 너그러운 인성과 품모는 마치 엄격히 계율을 지키며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보다는 자상한 이웃집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지만 후학들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계율을 어기거나 진언행자로서의 모습을 어겼을 시에는 스승님으로서 때서운 사자후 일상에 오금이 저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려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 후학들에게 던져진 커다란 화두는 아닐런지...

陰 德 陽 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양건설주식회사가 불자 여러분들께 2001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德陽建設株式會社 대표이사 李相斗

본 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11-20번지 전화 : (055)759-4267, FAX : (055)759-4269 E-mail : dyks @ chollian.net 부산사무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54-9번지 전화 : (051)643-2261, FAX : (051)643-2055 E-mail : nocya @ netsgo.com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02)552-1080 팩스:(02)552-1082



## 광주 법황사 법수원(法水願)전수님

전수님은 교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취재 박현수·황의수

### 불교는 실존적 철학이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담겨있는 주관적 뜻, 목적의식, 도덕적인 결단, 사회규범 가치 등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연구방법론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체험 연구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 의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학자가 있다면 그 방법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모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들의 행위 및 가치를 연역체계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의식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추체험 연구 방법이라 한다. 이것은 사회학을 연구하는 한 방법론이지만 종교의 포교론에서는 가장 핵

것도 아픈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닦아주려는 부처님의 큰 뜻이라 생각한다고 하셨다. 쉽게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 진언밀교도량을 세우고자

요즘은 사찰을 건축하거나 탑을 세우거나 부처님을 모시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추세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조건 최고만 지향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처님은 크기가 동양에서 최고라니, 경내의 무슨 탑이 아시아에서 최고 높다니, 아니면 대웅전 전체를 순금으로 칠한다, 불상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옥으로 만들었다는 등 참으로 한심한 중생들의 욕심을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법황사의 외형은 보기에조차 안 서러울 정도로 초라하다. 비만 오면 서원당 사택 주방 할 것 없이 빗물 받치는 그릇들을 사방팔방에

하고 같이 절망하며 온갖 장애를 함께 넘어온 많은 교도들이 지금도 법황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여년을 승직자와 교도가 같은 사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총지종이 아닌 타종단 아니 타종교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총지종만이 갖는 진언수행자로서의 금강 같은 신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교는 인연을 중요시한다. 오고 가고, 나고 죽음을 다 인연이라는 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심이 극으로 인승을 부리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승직자와 교도, 스승과 제자, 혹은 교도와 교도로써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20년 가까이 그 인연을 끊지 않으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은혜이며 진언밀교의 위신력이며 전수님의 법력일 것이다. 또한 전수님이 갖춘 인간적인 성품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 여긴다. 전수님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그 성품은 어느 남정네 못지 않게 시원스럽고 대범하다고 종단 내에서는 평해지고 있다. 그러한 성품이 지역감정이 극심하던 1983년 경상도에서 이곳 광주까지 오셔서 교화를 처음 시작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법황사를 이끌어 왔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법황사는 한때 학생회, 청년회, 자성학교, 신도회등 여러 신행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사원 내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독서실은 그 사용자수가 너무 많아 자리가 항상 부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합창단을 조직하여 수많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자성일마다 서원당에는 교도들로 가득하여 서원당 밖에까지 앉아 법회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회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와해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이야기되었지만 전수님은 본인의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씀하시며 자만심에 빠지지 쉬운 중생에게 부처님이 주신 큰 가르침이라고 하신다. 아직 법황사에는 금강 같은 신심을 가슴 가득 담고있는 진언수행자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혜를 밝히고자 수행중이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서원을 결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전수님의 입가에는 연꽃같은 편한 웃음이 가득 묻어 있다.

그들의 아픔과 비애와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부처님의 자비로서 어루어 만져주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달래주고자 전수님께서

광주민주항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1000일 불공을 시작하셨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이름조차도 거론되는 것을 통제했던 시절이라 그들을 위해 불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수는 없었다.

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대중속에 들어가 교화하고자 하는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같이 느끼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실천하는 것 추체험 포교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으로 보면 일찍이 우리 종단은 이를 포교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종단은 종단의 창건자님과 총지종의 지포에서 밝혔듯이 첫 번째가 생활불교이다. 아울러 중도 원정대성사님께서서는 불교는 "실존적(實存的) 삶의 철학(哲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빛고를 광주에 원덕서원당(圓德誓願堂)이 개설되고 부산 정각사에서 정각원전수님 아래에서 수행 중이던 법수원(法水願)전수님이 초대 주교로 죽비를 잡으셨던 1983년의 광주의 분위기는 참으로 살벌하고 암울하고, 분노와 아픔이 가득 담긴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물결이 충장로 혹은 도청 등에는 흔적도 없이 말라 버렸지만 광주시민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도 마르지 않은 채 가득가득 고여 있었다. 그들의 아픔과 비애와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부처님의 자비로서 어루어 만져주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달래주고자 전수님께서서는 광주민주항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1000일 불공을 시작 하셨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이름조차도 거론되는 것을 통제했던 시절이라 그들을 위해 불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수는 없었다. 주위의 많은 만류에도 전수님께서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고자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 하시면서 자신이 교화의 시작을 이곳 광주에서 하게 된

늘어놓아야 하고 일제시대때 지은 건물이라 외형적인 형태조차 도저히 절이라고 보기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는 빗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 전체에 천막을 덮고 그 위에 천막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느라 페타이어를 묶어 얹어 놓으니 어리석은 중생의 눈으로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면 고통상이나 폐품을 수집하여 모아놓은 창고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에는 더욱 이상하게 비추어진다. 불교총지종 법황사라고 현판은 크게 붙여 놨는데 눈 씻고 봐도 절은 보이지 않는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외형이 무슨 소용이 있나 부처님만 계시면 그곳이 곧 법당이라 하지만 근거가 낮은 우리 중생은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전수님께서서는 이곳 광주에 누구나 쉽게 찾아와 부처님의 자비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는 진언밀교도량을 세우고자 서원을 발원하여 20여년을 수행 정진 중이시다. 그것은 번듯한 서원당을 갖고자 하는 전수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통해 서로에게 공덕을 회향하게 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곁에 두고자 하는 화하 중생을 행하는 승직자로서의 사명감이다.

### 금강 같은 신심으로

처음 원덕서원당으로 개설하였을 때부터 전수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수행



법황사 전경



너무 낮아서 비가 새 지붕을 비닐로 덮고 페타이어로 눌러놓았다.



**약 려**  
총기 11년 정각사 근무  
총기 12년 원덕서원당(총기 13년 법황사 개명) 주교  
총기 18년 중앙총회의원 선임  
총기 25년 밀인저(대전수) 승서  
총기 28년 원의원

### ▶ 스승님 건강하시죠? 법황사의 사원 여건이 참으로 열악하군요.

아직 내 그릇이 모자라니 수행을 더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지요. 우리 교도들도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중이니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 보살님이 그러시던데 비가 새면 손수 지붕위에 올라가 고치신다고 하시던데요(웃음)  
덕분에 사다리 타기, 지붕위로 건너뛰기는 전문가 수준이죠(기자웃음). 보시다시피 건물이 낡아 여름에 비가 오면 지붕 이곳 저곳에서 비가 쏩니다. 그렇다고 서원당 안에서 우산 펴놓고 불공할 수는 없고, 불공하러 서원당에 나온 교도들 보기 미안해서 지붕위에 올라가 비가 새는 곳의 기와를 들어 비닐을 한 장씩 깔아주는 임시방편식 수리를 합니다.

▶ 처음 이곳에 와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처음에 와서 시창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에 대꾸도 안해요 물건을 살려고 해도 잘 팔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내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 물어라처럼 지냈어요(웃음). 광주민주항쟁이 1980년 5월에 있었는데 내가 광주에 온 것이 1983년이었으니 경상도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배타심이 상당히 심했지요. 지금은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정치판에만 존재한다면서요.

▶ 그런 상황에서 교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뇨. 부처님은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구분을 하지 않으셨거든요.(일동웃음)

▶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천일불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죠. 지금은 희생된 사람들 모두가 명예도 회복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도 받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은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범죄자였고 소위 말하는 빨갱이였으니 주위에서 만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범죄자도 빨갱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중생일 뿐이죠.

▶ 마지막으로 승직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승님 : 글썽요. 승직자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자라면 꼭 이것 하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이롭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이롭게 해야 할 뜻이 있어야 하며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려 하면 그 이익은 길지 못하며 또 사람은 많아요 도와 주는 이 없다.' 종조법살집에 있는 종조님 말씀입니다. 바로 자리타(自利利他)를 쉽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말이나 행동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긴시간 좋은 말씀 그리고 취재에 많은 협조 감사합니다. 법황사 062)676-0744